

광주 女 5총사, 폴리로 세계인에 말 걸다

다섯 명의 20대 여성들이 광주 폴리(Folly)로 세계인과 교류에 나선다.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폴리를 이용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과 접촉, 향후 '문화교류 네트워킹'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다.

'글로벌 바보들의 플랫폼'(Global Dummy's Platform·이하 글바폼)이 광주비엔날레재단과 함께 오는 27일 YMCA 무진관과 광주 구도심에 설치된 9곳의 폴리에서 '광주 폴리 로드' 행사를 개최한다.

광주 폴리는 세계 유명 건축가와 디자이너 11명이 지난 2011년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기간에 광주 옛 읍성터 9곳에 설치한 조형물이다.

문화그룹 '글로벌 바보들의 플랫폼'

27일 구도심 9곳 '폴리 로드' 행사

미국 등 다국적 20대 60여명 모집

그룹 미션·소셜 파티·워크숍 진행



문화 커뮤니티 '글로벌 바보들의 플랫폼'이 광주 폴리를 활용한 문화 행사로 세계인들과 교류에 나선다. 사진은 '글바폼' 팀의 '광주 폴리 로드' 기획회의 모습.

글바폼은 하지윤(여·24)·정홍선(여·26)·서소행(여·26)·김효성(여·23)·김현수(여·27)씨가 지난 2010년 만든 문화 커뮤니티다.

스페 쏘기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타인과의 소통과 문화적 감수성이 부족한 이들을 꼬집기 위해 글바폼이라고 이름 지었다. 'Fun', 'Networking', 'Identity'가 글바폼을 대표하는 키워드다. 그동안 2차례의 포럼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 필요한 자세'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광주 폴리 로드' 프로젝트는 글바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세계 속에 광주를 알리기 위해 광주 폴리를 주제로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다섯 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다. 미국, 인도네시아, 이란, 필리핀, 우간다 등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내외국인 60여 명도 직접 모집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 '광주 폴리로 재미 찾기' 그룹 미션, 소셜 파티 순으로 진행된다. 다국적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만큼 모든 행사는 영어로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글바폼이 이번 행사의 목적과 전체 스케줄을 소개하고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참가자들 간 마음의 벽을 허물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 1시부터는 '광주 폴리로 재미 찾기' 그룹 미션이 진행된다. 60여 명의 다국적 참가자들이 7개 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제한된 시간 내 미션을 수행하고 스텝별 9개를 획득해야 한다.

장동 로타리에 위치한 '소통의 오두막'(한인 혜로스 작)에서는 팀원들이 둘째 팀으로 'FOLLY'·'GDP'·'GWANGJU' 등의 단어를 만든 뒤 인증 색을 찍어 페이스 북에 올리면 된다. 대한생명사거리 '광주사람들(나데르 테라니 작)'에서는 '세계 속 광주'에 대한 생각을 리본에 적어 작품에 끓을 예정이다.

문화전당 옆에 위치한 '사랑방'(프란시스코 산인 작)에서는 음악에 맞춰 30초짜리 플래시몹 동영상 만들어야 한다. 금남공원 앞 '유동성 조절'(알레한드로 자에라풀로

작)에서는 단체출범기와 단체 사진 찍기를 진행하며, '99 칸'(피터 아이젠만 작)에서는 추첨한 키워드에 맞는 시민들과 함께 폴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미션을 수행한다.

'열린 장벽'(정세훈·김세진 작)에서는 도착 시 흘러나오는 노래 제목을 맞춰야 하고, '열린 공간'(조성룡 작)에 도착하면 노랑蓬선을 다트로 터뜨리고 간식 획득하면 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미션과 게임이 진행된다.

그룹 미션이 끝나고 오후 3시부터는 클럽 네버마인드에서 '소셜 파티'가 열린다.

정홍선씨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교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1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번 행사를 통해 만나게 되는 유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www.facebook.com/Global-dummyplatfor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08-4265.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립예술단 정기 평정 20명 중 10명 참여

광주시립예술단 노조의 평정 거부에도 불구하고 21일 정기 평정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광주문화회관은 일단 평정을 거부한 단원들에게 재평정 기회를 주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진행된 국극단 평정에는 대상자 20명 중 노조원 1명과 비노조원 9명 등 10명이 참가했다. 평정은 노조에서 주천한 평정위원 2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이 진행했다.

평정 시작 전 노조가 설치해 놓은 기록용 비디오카메라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으며 평정에 참여한 한 단원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예회관 관계자는 "노조가 과업인지, 평정 거부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 중"이라며 "과업이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평정 거부면 '광주시립예술단제 운영규칙' 등에 따라 재평정 기회를 주겠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실력으로 평가되지 않고 예술감독의 의향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평정은 거부 할 수밖에 없다"며 "오디션 제도를 개선할 때 까지는 평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정은 28일까지 계속되며 참가 대상은 모두 239명이다. /김미온기자 mekim@

"지역 문화자원 발굴 작업 힘 쏟겠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신임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교수



백수인(59·사진) 조선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재단은 최근 평가이사회를 개최, 제5대 이사장으로 백씨를 선출했다. 재단 창립 밭기인인 백 이사장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을 등을 거쳤으며 시인, 문학평론가로 활동중이다.

백 이사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지난 2005년 재단 창립 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폴뿌리 시민문화재단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며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호남기

로문화유산 조사 발굴

집대성 콘텐츠화 사업,

사이버 광주읍성 구축사업

등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를 만드는데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또 후원회장으로

강동완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으며 운영위원장은 김정희 서구문화

원 사무국장이 상임이사는 이기훈 재단 사무

처장이 맡게됐다. /김미온기자 mekim@

광주시에서 인삼비누 셋트 증정(15,000원 상당)

영주 부석사 선비촌 기차여행

- 출발일** 3월 22일(금) 23:50경 광주역 출발(무박 2일)
- 여행비** 68,000원
- 여행코스** 부석사/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죽령옛길/풍기인삼시장 및 5일장
-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 불포함** 식사비
- 특전** 영주시에서 인삼비누 셋트 증정(15,000원 상당)

진해군항제 벚꽃축제 기차여행

출발일 4월 4일(목) / 4월 9일(화) 광주역 출발(당일)
여행비 37,000원
여행코스 해군사관학교/해군기지사령부/여좌천(내수면연구소)/제황산공원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식사비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훌플러스 건너편)

다시 만나는 거장 김환기

탄생 100주년 기념전 오늘부터 은암미술관

'내 고향은 전남 기좌도(현재 안좌도) ... 그자 꿈 같은 섬이요, 꿈 속 같은 내 고향이다. ... 나에게는 고향 생각이란 곧 안산(고향 마을) 생각 뿐...' (김환기 '고향의 봄' 196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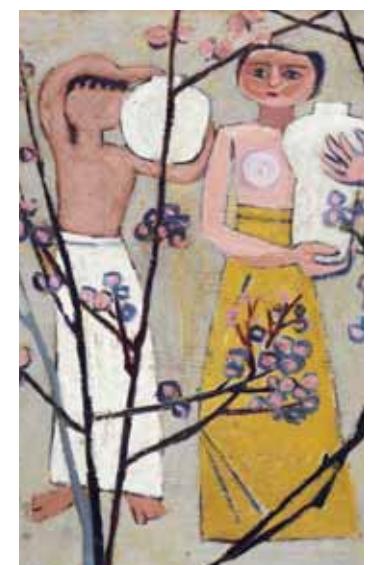
뉴욕에서 생을 마감한 신안 출신 수화(樹話) 김환기 화백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 했다.

김환기 화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광주에서 '김환기, 고향의 봄' 전이 열린다. 은암미술관 22일~3월 16일.

이번 전시에서는 김환기 화백의 사후판화 8점과 생존 당시 활동사진, 뉴욕 묘비 사진, 관련 영상 등이 전시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인 것이다'라는 명구를 남긴 김환기 화백은 항상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소재로 작품활동을 했다.

그의 호 수화도 '나무와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달항아리, 목풀, 매화, 학, 나무, 산 등



'여인과 매화와 항아리'

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 소재다.

은암미술관은 전시와 함께 다음 달 3일 '수화 김환기의 가치와 의미 재조명'을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문의 062-231-5299.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김환기·오지호作 문화재 됐다

문화재청 '론도'·'남향집' 등록 고시

화순 출신 오지호(1905~1982) 화백과 신안 출신 김환기(1913~1974) 화백의 작품이 문화재로 공식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21일 김 화백의 '론도'(1938년 작·71.5×61cm)와 오화백의 '남향집'(1939년 작·65×86cm)을 문화재 등록 고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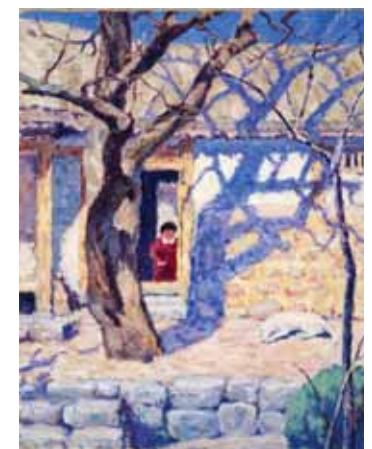
음악적 경쾌한 리듬을 연상시키는 색 면으로 구성된 '론도'(1938년 작·71.5×61cm)는 한국근대 화단에 보기 드문 주상작품으로 예술성과 근대기의 새로운 조형 실험을 보인다는 점이 평가받았다.

고목 한 그루가 서 있는 뒤로 문을 나서는 소녀와 둘 아래 누워 있는 개 한마리가 평화롭게 그려진 풍경화 '남향집'은 서구 인상파 양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착화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김환기작 '론도'



오지호작 '남향집'